

○위원장 안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64 회 국회(정기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정부는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 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그리고 국민 안심 사회 구현을 내년도 주요 재정목표로 삼고, 특히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전년 대비 9.7%, 41 조 7000 억 원이 증가한 470 조 5000 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9 월 3 일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된 이후 2 개월 동안 많은 상황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제성장률, 고용, 실업 등 우리 경제의 각종 주요한 지표들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운용에 있어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해야 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확장적 재정 운용이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23 조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과 소득주도성장의 실효성 문제, 남북경협 예산의 적정성 여부 등 여러 재정 현안들에 대해 여야 간 다양한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음이 또한 사실입니다.

조성된 재원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불요불급한 지출의 억제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내년도 재정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 활동을 통해 이번 예산안이 소기의

목적은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재정건전성 관리 문제, 분야별 재원 배분 문제 등 균형 있는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의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예결위원장으로서는 정부 인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예결위를 앞두고 기획재정부 등 예산 관련된 분들의 인사설이 있습니다.

예산안은 우리 국민생활에 1 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예산안의 심사는 정말 국민들과 국가에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회와 정부 또 여야 간 협의를 심도있게 해야 되는데 그 한 축이 인사설에 휘말리는 등 그 협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올바른 그러한 상황이 아니나라는 점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정기국회 마지막, 예산안이 확정돼서 국민들한테 내놓을 때까지는 우리 팀이 각자 역할을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 측에 당부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오늘부터 이틀간 종합질의의를 하고 이어서 7 일부터 12 일까지 나흘 동안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각각 이틀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부별심사 대상기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 준비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질의는 비경제부처 부별심사가 끝나는 12 일 자정에 마감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가 끝나면 안건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늘 질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1 차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 분으로, 보충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 5 분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등 관계 기관장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와 상임위 일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예결위와 상임위 양쪽에 출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출석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이한 사유로 차관 등이 참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간사님들에게 반드시 사전 양해를 구하시고 회의 도중 사정이 생겨 이석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간사님들과 위원장께 양해를 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상수 의사일정 제 1 항 2019 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 2 항 2019 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 3 항 2019 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국무총리의 인사말씀에 이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낙연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9 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해 주실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등의 심의를 통해 정부는 위원님 여러분께 예산안 등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적과 제안을 받겠습니다.

올해에도 정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며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이루었고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도록 도왔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 비무장화됐고 이달부터 땅과 바다와 하늘에서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가 멎었습니다.

지방의 자율과 활력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자치분권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2022 년까지 20 조 원 이상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 자치분권을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소득격차 확대가 고착되지 않도록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의료비 절감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초동방역 등 대비태세를 개선해 3 년 만의 메르스와 해마다 발생하는 조류독감(AI)의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자살예방, 산업재해 방지, 교통안전 제고 등 국민생명 지키기 3 대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의 안전.안심을 돕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과제 또한 많고도 무겁습니다.

수출은 역대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고 소비는 회복 기미를 보이지만 투자가 둔화되고 고용도 위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고령화의 가속화와 출산율의 지속적 저하, 생산가능인구의 본격적 감소 같은 구조적 위협이 상존하고 일부 정책 시행 과정의 진통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과 미국 금리 인상, 신흥국 금융불안 확산과 유가 불안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인 2.9%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내년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창업 촉진, 연구개발 활성화, 규제 혁신,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으로 경제 활력을 높여 고용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면서 당장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와 사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와 사용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및 감을관계 해소 등 공정경제 기반을 더 탄탄히 다지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도 굳건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 가도록 전투력 향상 등의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제와 사회의 질서를 개선해 가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수렴하고 보완함으로써 변화가 연착륙하도록 더 섬세하게 국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019 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정부의 그러한 의지와 고민을 담고자 했습니다. 당면한 경제적,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7% 늘린 470 조 5000 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경제부총리가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꼭 해야 할 일들을 예산안에 담고자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생각과 다르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깨우쳐 주시고 합리적 대안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예산안 심의에 성실히 임하면서 예결위의 논의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에 거듭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존경하는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 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하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소비는 비교적 견조한 편이나 민간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과 분배 지표도 악화되면서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삶의 질도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 중

통상마찰 심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우리 경제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내외 도전 과제와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하에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 조 5000 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있어 세 가지 측면을 고려했습니다.

